

“정말 의미 깊은 상... 아미에게 바칠게요”

<BTS 팬>

방탄소년단 '2020 MTV 유럽 뮤직 어워즈' 4관왕 올라 다베이비·레이디가가 등 제치고 '베스트송' 첫 수상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020 MTV 유럽 뮤직 어워즈' (2020 MTV Europe Music Awards)에서 4관왕에 올랐다.

방탄소년단은 8일(미국 동부 시간) 전 세계 생중계로 진행된 이 시상식에서 '베스트 송' (Best Song), '베스트 그룹' (Best Group), '비기스트 팬' (Biggest Fans), '베스트 버추얼 라이브' (Best Virtual Live) 4개 부문에 수상했다.

1994년 시작한 'MTV 유럽 뮤직 어워즈'는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노래와 뮤직비디오를 선정하는 시상

식이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베스트 그룹', '비기스트 팬' 부문에 선정되며 이 시상식에서 처음 상을 받았고, 이듬해에는 두 부문을 비롯해 '베스트 라이브' 상까지 거머쥐었다.

방탄소년단은 올해 시상식에서 지난 8월 발표한 '다이너마이트'로 가장 중요한 시상 부문 중 하나인 '베스트 송'을 처음으로 차지했다.

다베이비 '룩스타', 두아 리파 '돈스타트 나우', 레이디 가가와 아리아나 그란데의 '레인 온 미', 퀘이크드 '블라인딩 라이프' 등 경쟁한 후보를 제치고 트로피를 쥐었다.

정국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이 상은 정말 의미가 깊다"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팬들과 함께 이 노래를 즐기고 싶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제이홉은 "이 상을 아미(방탄소년단 팬)에게 바친다"며 감사를 표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6월 개최한 온라인 콘서트 '방방콘 더 라이브'로 올해 신실한 부문인 '베스트 버추얼 라이브' 상을 받았다.

'방방콘 더 라이브'는 개최 당시 100여개국에서 최대 75만6000여명의 동시 접속자가 몰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시청자를 모은 라이브 스트리밍 콘서트로 기네스에 기록됐다.

방탄소년단은 "정말 많은 분이 우리 온라인 콘서트에 함께하셨는데, 팬덤믹 상황에서 공연하고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어 정말 행복했다"며 "직접 만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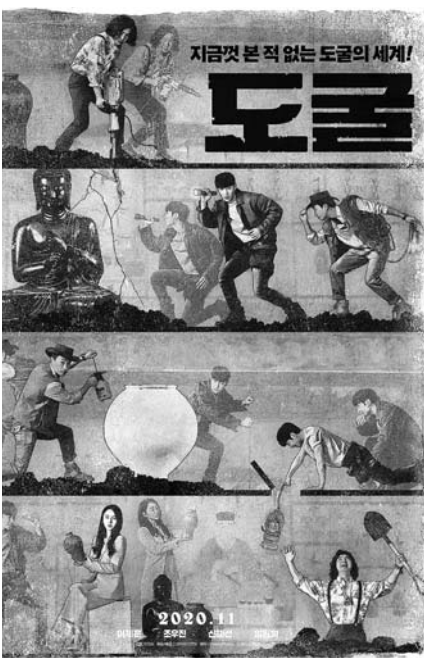
이들은 최근 열린 주요 음악 시상식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으며 글로벌 아티스트로서의 입지를 재확인했다.

지난 8월 개최한 '2020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팝', '베스트 K팝', '베스트 안무', '베스트 그룹' 등 4관왕의 영예를 안았고 지난달 '2020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는 4년 연속 '톱 소셜 아티스트'로 뽑혔다.

오는 22일 열린 예정인 '2020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에선 '페이보릿 듀오 오어 그룹-팝/록', '페이보릿 소셜 아티스트' 2개 부문 후보에 올라 있다.

'도굴'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1위

누적 관객수 56만5000여명
2위 삼진그룹 영어토익반



영화 도굴 포스터. 사진-CJ엔터테인먼트 제공

범죄 오락 영화 '도굴'이 개봉 첫 주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9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도굴'은 지난 주말 사흘(6~8일) 동안 42만3000여명의 관객을 모아 점유율 62.5%를 기록하며 주말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4일 개봉 이후 1위를 지키며 누적 관객 수는 56만5000여명을 기록했다.

이재훈, 조우진, 신혜선, 임원희 등이 주연한 영화는 문화재 도굴이라는 신선한 소재와 통쾌한 복수극이라는 결말로 관객을 끌어모았다.

2주 동안 1위를 지켰던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은 한 계단 밀려나 2위다. 주말 동안 18만5000여명(점유율 26.2%)을 더해 지난달 21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은 125만7000여명이다.

지난 추석에 개봉해 장기 흥행하고 있는 '담보'가 3위다. 주말 관객은 1만7000여명을 더하는 데 그쳤으나 9월 29일 개봉 이후 누적 관객 170만명을 돌파하며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재개봉작인 '노트북'과 '위플래

쉬'가 새로 10위권에 진입했고, 크리스토퍼 놀란의 '테넷'도 8월 이후 장기 상영 중이지만 관객 수는 각각 1만명 안팎 수준이다.

추석 연휴 이후 주말 극장을 찾은 관객 수는 40만~50만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영진위의 입장료 할인권 배포가 재개된 지난주(10월 30일~11월 1일) 61만7000여명도 소폭 늘었고, 지난주는 70만8000여명을 기록했다.

트로트 가수 홍진영 논문 표절 의혹

“석·박사 학위 반납하겠다”

조선대학교가 가수 홍진영이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휩싸이면서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연애인 발(發)' 학위 논문 표절 의혹으로 사회적 파문이 커진데다가 때에 따라서는 논문 지도교수, 심사위원 등의 책임 논란이 불거질 수 있고 나아가 조선대에 대한 학문적 신뢰가 훼손될 개연성도 있다.

특히 시민단체 '사법시험 준비생 모임'(사준모)이 교육부에 홍씨의 논문을 포함한 경영대학원 학위 논문에 대한 전수조사를 교육부에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는 등 파문이 확산할 조짐이다.

홍진영은 최근 논문 표절 의혹이 불거지며 "지난 10여년을 따고 눈물을 흘리며 열심히 살았지만 이런 구실에 오르지 저 또한 속상하다"면서 "이 모든 게 저의 불찰이고 잘못"이라며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홍진영은 2009년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조선대 무역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2012년에는 같은 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최근 국민일보는 홍진영의 석사 논문 국문 원본이 '카피컬러'로 검사한 결과 표절률이 74%로 나왔다고 보도했다.

홍진영의 부친이 조선대 교수로 재직할 것이 학위 취득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다.

이에 대해 조선대 관계자는 9일 "홍진영 씨 문제가 불거져 대학이 불명예스러운 것은 유감이다"며 "오늘 오전 대학원과 본부 차원에서 홍진영 씨 문제와 관련해 논의한 결과, 학위반납 제도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다른 대학 사례 등을 참고해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입장들을 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선대는 홍진영 씨 학위를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포크 '따로 또 같이' 나동민 미국에서 별세... 향년 64세

1980년대 포크 그룹 '따로 또 같이'로 활동한 가수 겸 작곡가 나동민이 지난 5일 미국 뉴저지주에서 자병으로 별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향년 64세.

1956년 서울에서 태어난 고인은 청년 시절 라이브 카페 무대에서 공연해오다 1976년 강인원을 만나게 돼 함께 음악 활동을 시작했다.

1979년 강인원을 비롯해 이주원, 전인권과 포크 그룹 따로 또 같이로 1집 '노래모음 하나'를 냈다.

이후 전인권과 강인원이 잇달아 탈퇴했고 나동민은 이주원과 함께 팀에 남아 3~4집을 발표했다.

3집은 따로 또 같이 최고 명반이자 들국화 데뷔 음반과 함께 1980년대 중후반 국내 대중음악의 르네상스를 이끌었고, 4집은 전문 세션밴드를 기용해 스튜디오 세션의 전문화를 가져온 앨범으로 평가받는다.

포크와 록의 결합을 보여준 따로 또 같이는 1988년까지 활동하는 동안 1970년대 포크 문화와 1980년대 록 문화의 가교 구실을 했다. 들국화의 모태가 된 그룹이라는 평가도 있다.

나동민은 뛰어난 작사·작곡 실력으로 '뽕도는 얼얼', '인젠가 그날', '조용히 들어요', '잡 못 이루는 이밤을', '풀잎', '그저 가려나' '나는 이 노래하러오' 등 수많은 명곡을 탄생시켰다.



블링블링 첫 싱글 발매 메이저나인은 신예 블링블링이 오는 17일 첫 싱글 'G.G.B'를 한일 양국에서 동시 발매한다고 9일 밝혔다. 동명 데뷔곡은 합작 기반의 강렬한 EDM(일렉트로닉 댄스 음악) 장르로, 앨범에는 한국어 버전과 일본 버전이 모두 실린다. 블링블링은 한국인 멤버인 유빈, 차주연, 최지은, 나린과 일본인 멤버 마린, 아이미로 구성된 6인조 그룹이다.

김병만 “국내 생존이 외국보다 어렵다”

제로포인트 후속 김수미 출연 수없이 많은 나라의 정글을 탐험한 '족장' 김병만(45)이지만, 정작 국내에서의 생존 도전은 처음이다.

'정글의 법칙' 국내 편은 지난 8월 29일 처음 방송한 '와일드 코리아' 편을 시작으로 '헌터와 셰프', '제로포인트'로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해외 촬영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

해 국내에서 촬영하고 있지만, 국내 편들은 국내 나름대로 풍경과 생존 방식의 묘미를 보여주면서 위기를 기회로 활용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병만은 9일 열린 '정글의 법칙' 국내 편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국내 내는 굉장히 익숙하다.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항상 보던 산과 바다"라면서도 "막상 생존이라는 주제로 깊이 들어가 보니 다른 나라

보다 어렵더라"고 말했다.

이번 '제로포인트' 편에는 '골프 여제' 박세리를 비롯해 가수 개리, 개그맨 이승윤, 허경환, 배우 윤은혜, 기도훈 등이 김병만과 함께하고 있다. 김병만은 "이제 모든 멤버들이 다 각자 역할을 한다"고 팀워크를 강조했다.

'제로포인트' 후속도 이미 편성됐다. 역대 최고령 출연자 배우 김수미가 함께하는 '족장과 헬머니' 편이다. 7%대(닐스코리아) 시청률을 보이는 '정글의 법칙'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55분 방송한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안간국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00 TV쇼 진품명품(재)	6:00 생활의 발견 스페셜 6: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7:00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1부 8:00 KBS 아침 뉴스타임 8: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2부 9:15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3부 10:00 누가 뭐래도(재) 10:40 지구촌 뉴스 11:00 평안 빌리지(재)	6:00 MBC 뉴스투데이 1부 6:25 MBC 뉴스투데이 2부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TV에겐진 해피플러스 8:50 찬란한 내 인생 9:30 930 MBC 뉴스 9:45 기쁜 좋은 날 10:45 카이로스(재)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아침 뉴스 7:35 모닝와이드 3부 8:35 불세 2020 9:10 좋은 아침 10:10 SBS 뉴스 10:30 특집 삼탄 나는 오늘 11:00 꾸러기 탐구생활 11: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7:30 뽀롱뽀롱 뽀로로 8:00 뽀롱뽀롱 유치원 8:30 타사태시 9:40 생방송 우리집 유치원 12:00 EBS 정오뉴스 12:10 EBS 뉴스리뷰 플러스 14:45 최강전사 미니공대 15:45 몬카티 16:15 로빈 후드 16:30 뽀롱뽀롱 유치원 18:00 생방송 퓌퓌 보니 하니 19:30 자이언티 펠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KBS 네트워킹 특선 세상다만사 13:50 안녕 우리말(재) 13:55 지구불지키는 20가지 제안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2 14:30 제27회 KBS-한전 음악공쿠르 대상선정 연주회 1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시간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탐나는 제주	12:10 생생정보 스페셜 12:50 진로잡10(재) 13: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15:00 KBS 뉴스타임 15:10 자동차공부채산 위키2 15:30 TV 유치원 16:00 트레킹노드 세상을 걷다 스페셜 16:50 디큐멘터리 3일(재) 17:45 통합뉴스룸 ET	12:00 12 MBC 뉴스 12:20 백퍼더 편집판 1부 12:50 백퍼더 편집판 1부 13:20 뽀롱뽀롱 친구친구 15:10 자동차공부채산 위키2 15:20 이 맛에 산다 16:00 기쁜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15 카이로스(재)	12:00 SBS 12뉴스 12:25 JIBS 뉴스 12:50 2020 아예안 한류뮤직협회 개막공연 14:00 뉴스브리핑 16:00 내모세(재) 17:00 SBS 오뉴스 17:35 JIBS 뉴스 17:50 행복살게 알짜배기	제주 CBS FM 93.3MHz 90.9MHz 7:00 김다희의 아침뉴스 7:20 김현정의 뉴스쇼 9:00 그대랑가게 김석훈입니다 12:00 CBS 뉴스 12:05 천안이 있는 숲길 13:30 생방송 생 15:00 CBS 뉴스 17:05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5 김종대의 뉴스임 21:35 백도야간 22:05 레전드키즈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보물섬 20:30 누가 뭐래도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역사저널 그날 22:50 더 라이브 23: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라인	18:15 2020 프로야구 플레이오프 2차전 두산-KT 21:30 평안 빌리지 1부 21:10 평안 빌리지 2부 23:20 유럽방의 문제아들 1부 23:20 유럽방의 문제아들 2부	18:15 특선하고 학생의 골랐기 프로젝트 두드림 시즌2 4:30 찬란한 내 인생 19:50 MBC 뉴스데스크 1부 20:45 MBC 뉴스데스크 2부 21:20 카이로스 1부 22:00 카이로스 2부 22:40 PD수첩 23:35 100분 토론	18:50 발도강산 GoGo 19:50 SBS 8 뉴스 20:30 JIBS 8 뉴스 21:00 순간포착 세상에 이면일이 1부 21:30 세상에 이면일이 2부 22:00 펀트하우스 1부 22:40 펀트하우스 2부 23:15 불타는 청춘 1부 23:55 불타는 청춘 2부	KCTV 7:00 KCTV 뉴스 8:00 솔기로운 농촌생활 9:00 KCTV 뉴스 9:30 2020 중국어 노래 경연대회 도시재생뉴스 11:30 UHD 특선 13:10 구속구서 제주 프로젝트 제작ING 17:00 KCTV 뉴스 18:00 솔기로운 농촌생활 20:00 중국어 노래 경연대회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오늘의 운세 10월

김종상 지단(호미)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노력의 대가가 현실로 나타나니 인내하라. 준비된 자는 웃는다. 48년 부하직원에 존경을 받거나 동료의 인정을 받는다. 60년 자녀와의 대화가 필요하다. 답답함을 해소하라. 72년 생각이 복잡하고 결정을 어렵다. 상의하거나 교육현장에서 정보를 활용. 84년 등산이나 여행 또는 낚시를 즐기기도 한다.

42년 학원이나 지연이 필요하고 단합하게 된다. 54년 기획 또는 통계분야는 일이 분주하고 이익이 따른다. 66년 갈등이 다가오니 오늘은 부지런하게 움직여라. 78년 주변에서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거나 도움을 받는다. 90년 친구나 동료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 행복한 즐거움이 있다.

37년 외출 또는 가정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진다. 49년 한약재로·건어물·수산업 종사자는 손님 방문이 따르니 경리 정돈을 하라. 61년 시비나 구설이 오거나 주변 일에 잠깐은 자제하고 가지말 것. 73년 새롭게 미래 설계. 계획이 필요한 시기다. 85년 내가 머뭇거리기 아무담도록 뒷마무리를 잘 해야 한다.

43년 마음 조절이 때론 필요하다. 급한 성격은 불리. 55년 동업 또는 창업에 다른 생각할 여념이 없다. 시장조사를 철저하게 하라. 67년 변화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개인사업은 원만하고 계약이 증가. 79년 신변에 위험이 따를 수 있다. 조기 귀가, 과음을 피하라. 91년 많은 사람들과 친목, 단합을 하게 된다.

38년 대인관계가 좋으면 명예가 따른다. 50년 마음의 문을 열고 원만한 인간관계 형성을 유지하라. 62년 마음, 어깨가 무거워도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것이 상책이다. 74년 협조자나 동업자가 생기면 상의해 공존공생하는 것이 유리하다. 86년 구설이 따르니 말을 신중하게 해야 한다.

44년 주변과 융화, 단합을 하게 되며 즐거움이 따른다. 56년 농·수산업은 새벽부터 바쁜 일과 계약 건이 있다. 68년 하고자 하는 일에 결과가 있으니 최선을 다하라. 80년 니그러움이 상대를 편하게 하고 유머가 필요하다. 92년 불만이 때론 다가와도 걸로 드러내지 말 것.

39년 일이 호전되고 자녀와 관계된 일로 소식이 오거나 경사가 있다. 51년 애매한 행동이 구설이 되니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하다. 63년 외에도 모양을 내거나 급전 지출이 따른다. 75년 재정적 지출로 갈등한다. 다툼은 화를 자초하며 내게 불리. 87년 기회가 자주 오지 않으니 결단이 필요하다.

45년 하던 일에 변화가 오거나 변동을 주고 싶어 한다. 57년 약속 만남이 이뤄지거나 여행갈 일이 생긴다. 69년 과음은 불리하니 적당히. 대중교통 이용. 81년 미혼자는 친구 결혼식에 참여하고 이성을 만나고 싶어한다. 93년 즐거움이 생기면서도 한편으론 허전함이 불려오니 기대를 크게 하지 마라.

40년 오는 말은 고운데 가는 말이 곱지 않다. 52년 중상모략 또는 배신이 오니 신중함이 필요하다. 64년 작은 아득이 있고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 76년 유통업·매장·피부·뷰티업종 이익이 증가 또는 매매 등 이익이 생기기도. 88년 평생직장보다는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자격증 취득 및 기술 습득.

46년 투자자 제테크는 전문가와 상의하면 일이 풀린다. 58년 재물 지출이 따르고 정신적 고통이 따르니 금전에 신경을 쓸 것. 70년 직업이나 업무의 변화 변동이 생겨 스트레스를 받는다. 82년 직업, 가정에서 변화를 필요로 한다. 미혼자는 결혼문제로 고민. 94년 맡은 일을 잘 하라 정신적 고통이 따른다.

41년 사업 수 수익이 있고 몸이 바빠진다. 53년 가을에 단비가 내리듯 일이 막힌 사람은 일이 호전된다. 65년 부부간 불화 갈등이 있고 자신이 부하직원에 의한 부재 발생. 77년 직장 또는 가정에서 불의의 이익이 오거나 벗을 낸다. 89년 기나긴 시간이 나에게겐 소중한 시간을 잃지말 것.

47년 배우자 또는 상대와 인성 조심. 아침부터 인성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59년 교육, 펀드, 설계사에게는 몸이 분주, 활동 증가. 71년 이미지관리업에 인기가 있을 수 있음. 83년 기쁜 날에 참여하면 지갑을 잘 챙길 것. 마음 고생이 늘. 95년 감정적 기본으로 대하면 아랫사람과 불화하니 마음을 넓게.